

2012 1분기 U.A.E 한류 동향 보고

U.A.E(아부다비) 전수연 통신원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해당 사항 없음

2. 영화 산업

아쉽지만 이번 분기에 상영된 한국 영화는 없었다. 전체 개봉작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일시	전체수입	증감율	개봉작수	1위 작
1월 5일 - 8일	\$1,031,117 (한화 약 12억 원)	-50.0%	14	셜록홈즈 : 그림자게임
1월 12일 - 15일	\$1,115,110 (한화 약 13억 원)	+8.2%	18	다크 아워
1월 19일 - 25일	\$1,628,614 (한화 약 19억 원)	+46.1%	19	언더 월드4 : 어웨이크닝
1월 26일 - 29일	\$1,413,986 (한화 약 16억 원)	-13.2%	18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2 : 신비의 섬
2월 2일 - 5일	\$1,958,297 (한화 약 22억 원)	+38.5%	23	Omar W Salma 3
2월 9일 - 12일	\$1,453,541 (한화 약 17억 원)	-25.8%	25	세이프 하우스
2월 16일 - 19일	\$1,800,622 (한화 약 20억 원)	+23.9%	27	고스트 라이더3D : 복수의 화신
2월 23일 - 26일	\$1,444,258 (한화 약 16억 원)	-19.8%	28	디스 민즈 워

3월 1일 - 4일	\$1,547,448 (한화 약 18억 원)	+7.1%	28	엑트 오브 밸러: 최정예 특수부대
3월 8일 - 11일	\$1,726,368 (한화 약 19억 원)	+11.6%	26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
3월 15일 - 18일	\$1,362,508 (한화 약 15억 원)	-21.1%	27	

3. 음악 산업

걸프뉴스는 UAE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이다. 걸프뉴스는 1월 5일자로 범-아시아 걸그룹 Blush(구성원: 일본, 홍콩, 필리핀, 인도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 소개하고 K-Pop의 파급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100명의 UAE 팬들이 모여 K-Pop을 반영하는 플래시몹이 두바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관련 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5T38UhzZXP8>

* 관련 기사 : <http://gulfnews.com/arts-entertainment/music/hoping-to-make-world-blush-1.961293>

4. 공연 산업

1) 1/20~2/4 웅알스, 두바이 Marina Mall 공연

웅알스가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공연을 진행 했다. 이들을 돕는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객원교수는 13일 "웅알스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두바이 페스티벌에 참가해 15차례 무료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은 해외 관광객을 위한 쇼핑 축제로 매해 1~2월 열린다. 웅알스는 주최 측의 초청을 받고 이번 행사에 참가했으며 공연은 매번 만원을 이뤘다고 서 교수는 전했다.

2) 2/8 난타, 아부다비 공연

Gourmet Abu Dhabi 2012 오프닝으로 한국의 난타가 초대되었다. 16일 동안 진행되는 이 요리 페스티벌은 마스터 셰프들, 연예인들, 스페셜 게스트들을 초대하여 최고의 요리들을 선보였다.

5. 캐릭터/애니 산업

해당 사항 없음

6. 한스타일

1)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Taste of Dubai)에 한국인 요리사 참여

매년 열기를 더해오던 두바이 푸드 페스티벌에 두바이 소재 아시아나 호텔 소나무 레스토랑의 James Kang 셰프가 참여했다. Philips사가 주최하는 이 코너는 세계 각국의 훌륭한 셰프들을 초대하여 30분 가량 요리 강연을 하는 것이다.

2) 한국 현대 미술 전시회 ‘Korean Eye’, 아부다비에서 열려

2009년, 2010년에 이어 2011년 서울과 뉴욕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코리안 아이 전시가 아부다비 시내 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전시는 3.18부터 4.25까지 한 달여간 Fairmont Bab Al Bahr Hotel에서 진행된다.

3) 아부다비 북 페스티벌에 한국 출판사들 참가

3월 28일에서 4월 22일까지 총 6일간 열리는 아부다비 국제 도서전에 한국 출판사들이 참여한다. 장소는 아부다비 네셔널 전시센터이고 KITAB가 주최(아부다비문화유산국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판진흥기구)한다. 2011년 총 63개국이 참여하였으며 방문객은 236,000명이었다.

한국관은 40㎡의 규모로, 교원, 능률교육 등이 참여했으며, 위탁 전시 출판사로는 공앤박, 문학동네 등이 있다. 전시 내용으로는 한국관 참가사 도서 및 전시위탁도서 전시, 한국 전래동화 도서 특별 전시 그리고 파주출판도시 관련 도서 특별 전시를 한다.

7. 반한류 사례

해당 사항 없음

8. 기타

1) UAE 명문 칼리파 대학에서 ‘한국 알리기’

UAE 한인회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칼리파 대학에서 한국을 알리는 행사 ‘International Cultural Day’가 3월 18일 열렸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이 후원하고 칼리파 대학의 한국 동아리 ‘Han Club’ 학생들이 수개월 간 준비한 행사였다. 칼리파 대학은 UAE 상위 3% 수재들이 다니는 명문공대. 한국 카이스트 교수 등 15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한 해 정원이 약 200 정도 되는 학교에는 20%

정도가 외국인 학생이다. 김태완 UAE한인회 이사는 “한국인 등 외국인 학생도 학점 3.0이상이면 수업료, 책, 연구비 등이 무료”라고 칼리파 대학을 소개했다. 칼리파 대학 자원봉사자 학생들은 이날 한국 음식, 윷놀이, 한복 입기, K-pop, 찻흙 인형 만들기 등을 전시하며 한국을 알렸다. UAE 한인회는 '이준기와 함께하는 한국어 (CD 포함) 책, 양말 등 현물지원과 찻흙공예자 섭외 등을 통해 후원했다. (출처 : UAE 한인회, 월드 코리아 뉴스)

2) 한국, 아랍에미리트 첫 유전 개발 참여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가 유전 개발에 손을 잡았다. 지분의 40%는 한국 석유공사와 GS 에너지가, 60%는 아부다비 측이 보유한다. 한국은 20억 달러를 투자해 30년간 유전 운영권을 갖게 되며 전쟁 같은 비상시에는 물량 전부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계약에 명시했다.

3) 아부다비 골프 클럽에서 한국인 코치 영입

한국에서 온 이재민 코치가 Abu Dhabi Golf Club의 코칭 팀에 합류했다. 아부다비의 한인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 아부다비 골프 클럽에서 기대하고 있다. (Gulf News) 골프는 아부다비 거주 한인들 사이에 가장 인기 높은 스포츠 중 하나이다.